

제1절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Natural Monument)

천연기념물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지정한 동물, 서식지, 식물의 개체 및 종과 자생지, 지질·광물 따위를 말한다. 울진군에는 식물 5종(노거수)과 지질·광물 1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1. 울진 성류굴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번지 불영사 계곡 부근에 위치한다. 즉, 성류봉 서쪽과 왕피천 동안에 위치한다. 수중 동굴 구간을 포함해 총 길이 915m에 달한다. 기반암은 석회암이며 담홍색과 회백색, 흰색을 띠고 있다. 동굴 안에는 9곳의 광장과 수심 4~5m의 물웅덩이가 3곳 있다. 동굴 천장으로부터 아래로 발달하여 고드름처럼 보이는 종유석(鐘乳石), 동굴 바닥으로부터 위로 자라난 석순(石筍),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잘룩한 기둥을 이루는 석주(石柱) 등 다양한 형태의 동굴생성물인 스펠레옴이 흥미롭다. 동굴 곳곳에 오작교, 만불상, 로마궁전 등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는 12개 광장이 있다. 좁은 입구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지만, 내부는 비교적 넓다. 광장에는 대개 물이 고여 있는데, 수심이 4~5m에 이르는 곳도 있다. 내부 온도는 15~17°C로 연중 거의 변화가 없다. 습도는 90~95%, 수온은 15~16.5°C이다.

성류굴은 원래 신선들이 한가로이 놀던 곳이라는 뜻으로 선유굴이라 불리었으나 임진왜란(1592) 때 왜군을 피해 불상들을 굴 안에 피신시켰다는데서 유래되어 성스런 부처가 머물던 곳이라는 뜻의 성류굴 지명이 유래되었다. 임진왜란 때 주민 500여 명이 굴속으로 피신하였는데 왜병이 굴 입구를 막아 모두 굶어 죽었다는 슬픈 얘기가 전해온다. 1963년 5월 10일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2019년 현장조사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이 560년 6월 성류굴 안을 다녀갔다는 명문이 발견되었고, 신라 798년(원성왕 14) 화랑인 공랑(共郎)과 임랑(林郎)이 승려 범렴(梵廉)과 더불어 성류굴 안을 다녀갔다는 명문 또한 발견되었다. 이 명문들은 입구에서 약 320여 m 안쪽에 위치하는 제8광장에서 발견되었다.

2.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산381-1번지 수산리마을 입구의 오른쪽 언덕에 위치한다. 수령 300년 정도로 추정되는 굴참나무로, 높이 20m, 둘레 5.94m이다. 1959년 태풍에 의해 남쪽가지가 부러지고 썩은 부분을 수술한 상태로, 나무의 모양이 허약해 보인다. 이 나무는 신라 의상대사[625~702]가 심었다고 전해지며, 옛날 전쟁터에서 크게 패해 쫓기던 중 다급해진 왕이

이 나무 밑에 숨었다 하여 나무 옆으로 흐르는 강의 지명 왕피천(王避川)이 유래되기도 했다. 한때는 성류사를 찾는 스님들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였다.

굴참나무는 일본·중국 및 우리나라에 분포하며 줄기에 코르크가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향의 건조한 곳이나 돌이 많은 땅에서도 잘 살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다. 굴참나무의 껍질은 코르크로 이용되고 열매는 목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울진의 굴참나무는 굴참나무 가운데에서는 매우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가치를 볼 뿐만 아니라, 전설이 깃들여 있는 나무로서 문화적 가치도 높아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96호로 지정되었다.

3.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146-1번지 뒤뜰에 위치한다. 수령 250년의 산돌배나무로 외과 수술을 한 차례 받았다. 높이가 25m, 가슴높이 둘레 4.35m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6m, 서쪽으로 8m,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11m이다. 관리자인 광영수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 때 이미 뒤뜰에 있었다고 하나, 나무를 누가 언제 심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봄철에 산돌배나무에서 ‘웅웅’ 소리가 나면 나라에 큰일이 생기고, 열매가 많이 열리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림 171>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천연기념물 제408호)

하얀 꽃과 수형이 우아하여 관상수로 심는다. 한방에서 사과산·구연산·과당·포도당·자당 등을 함유한 과실은 생진(生津)·윤조(潤燥)·청열(淸熱)·화담(化痰), 뿌리는 탈장 치료, 나무껍질은 상한 등 유행성병, 줄기는 객란·토혈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잎에는 질소, 인, 칼륨이 함유되어 버섯 중독, 소아의 탈장, 객란, 토사 치료에 효과가 있다. 나무줄기와 잎이 무성하고 수세(樹勢)가 왕성하여 매해 3~4가마의 돌배를 수확한다. 과실 모양은 압리(鴨梨)처럼 생겼으며 ‘심배’ 또는 ‘참배’라고 부르며 감미와 과즙이 많고 향기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산돌배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보존 가치가 높아 1999년 4월 6일 천연기념물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4. 울진 행곡리 처진 소나무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27번지에 있는 수령 300년의 소나무이다. 수세(樹勢)가 양호하여 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높이 14m, 가슴높이 둘레 2m이고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땅에 닿을 정도로 처져 있다. 모양이 아름답고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마을이 들어설 때 심은 것으로 전하며, 1960년 이후 주변 소나무가 모두 벌채되고 행곡리 처진 소나무만 남았다. 소나무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벌레가 생기거나 휘거나 갈라지지 않아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 용재로 사용되었다. 강원도, 울진군, 봉화군에서 나는 춘양목을 최고급 소나무로 친다. 특히 울진군에 가장 많은 금강송이 분포해 있으며 최고급 소나무로 평가한다.

한방에서 솔잎은 통증과 피를 멎게 하고, 송진은 고약이나 반창고를 만드는 데 쓰는데 염증을 빨리 곪게 하고 고름을 빨아 낸다. 송화가루는 기운을 돋우고 피를 멎게 한다. 소나무를 베어 내고 7~8년이 지난 뒤에 뿌리에서 외생근균이 자라 버섯이 생기는데 이것을 ‘복령’이라 하며, 입맛을 돋우고 구역질을 없애 주어 중요한 약재로 썼다. 그 밖에도 소나무 씨앗, 속껍질, 봄에 나는 새순도 약으로 썼다. 나무가 희귀종이고 모양이 아름답고 특이하다. 생물학적 자료로 가치가 높아 1999년 4월 6일 천연기념물 제409호로 지정되었다

5. 울진 화성리 향나무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산190번지 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향나무를 심은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다. 수령 500년의 향나무로, 전신 외과 수술을 받았지만 생육 상태는 양호하다. 높이 14m, 가슴높이 둘레 4.2m, 뿌리 근처의 둘레 9m, 가지 밑의 높이 2.3m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6.3m, 서쪽으로 3.6m, 남쪽으로 6.8m, 북쪽으로 9.2m이다.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나무·노송나무로도 불린다. 이 나무는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 쓰이며, 정원수·공원수로 많이 심는다. 1982년 11월 4일 생물학적 자료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312호로 지정되었다.

6. 울진 후정리 향나무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7-2번지 바닷가 도로 옆에 위치한다. 수령 500년의 향나무로, 높이 11m, 가슴높이 둘레 1.25m이다. 향나무 옆에는 서낭당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울릉도의 향나무가 이곳까지 떠내려 온 것이라 한다. 이 향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서 민속학적·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줄기가 지상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나무·노송나무로도 불린다. 이 나무는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 쓰이며, 정원수·공원수로 많이 심는다. 1964년 1월 31일 천연기념물 제158호로 지정되었다.

제2절 보호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거목, 노목, 희귀목을 보호수라 한다. 울진군에는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 중인 나무가 60여 개소에 달하며 주요 보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울진 고성리 회화나무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164-1번지[고성리 구만동] 주종륜 집 앞에 정자로 이용되는 나무다. 수령 700년 정도, 높이 10m, 가슴높이 둘레 3.4m, 나무갓 너비 13m 정도이다. 2003년 태풍 피해로 가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회화나무는 최고의 길상목(吉祥木)이다. 회화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난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좋은 기운이 있어 서원이나 궁궐에 심었고, 공이 많은 학자나 관리에게 임금이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1982년 10월 26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제11-33-1-1호).

2. 울진 구산리 굴참나무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73 즉, 내성산동마을 앞쪽 내성산에 위치한다. 수령 500년 정도, 높이 22m, 가슴높이 너비 3.2m로 주변에 아홉 그루의 굴참나무 대경목(大莖木)과 함께 자란다. 성황당 성황목으로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왔으나 1972년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성황당을 없앤 뒤 현재는 내성산 쉼터의 정자나무로 이용되고 있다. 1982년 10월 26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제11-33-5호).

3. 울진 금매리 향나무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산17-1번지, 즉 국도 7호선 변 남두열 집터 뒤 대밭에 위치한다. 수령 400년 정도, 높이 15m, 지름 80cm, 가슴둘레 높이 1.85m, 나무갓 너비 8m 정도로 영양 남